# "대한민국 대표 치유·힐링도시 만들겠다"







# 구례군수

김순호 구례군수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도시 구례'라는 민선8 기 슬로건을 발표하고 민선7기부터 추진해 온 4대 권역별 사업과 오산 케 이블카·사계절 스키장 등 대규모 관 광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머물다 가는 관광 르네상스 실현에 나섰다. 특히 민선8기 최우선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꼽 고 치유·힐링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들어나가는데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김 군수는 민선7기의 기조를 이어가 면서 민선8기에는 이를 완성하고 새 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목표 를 다짐했다.



#### 주요 공약

▲구례자연드림3단지 유치 ▲구례읍 청년허브 조성 ▲구례읍 상권 르네상 스 사업 ▲아이쿱 고급병원 유치 ▲ 구례농촌유학센터 조성 ▲가족형 요 양타운 조성 ▲광역 관광개발권 섬진 강 통합관광벨트 조성 ▲오산 관광레 저 클러스터 조성 ▲지리산케이블카 국립공원계획 반영 추진 ▲지리산 피 아골 순환도로 개설 완료 ▲지리산온 천지구 에코힐링타운 프로젝트 ▲지 리산온천지구 민간자본 유치 ▲화엄 사권역 관광 르네상스 사업 ▲천년고 찰 문화 탐방로 조성 ▲탄소중립도시 실천 선도도시 조성 ▲공영버스 저상 전기버스 단계적 전환 ▲삼대삼미 전 원도시 재생사업 ▲수해 걱정 없는 도시환경 조성 ▲구례웰니스 복합센 터 조성 ▲국도 18·19호선 확포장 국가계획 반영 ▲드론 LRS 실증 추 진 ▲청년 스마트 농업 창업지원 ▲ 청년 하우스 조성 ▲지리산 치유농업 캠퍼스 조성 ▲우리밀 복합산업 육성 ▲전 농경지 토질 개선 ▲어르신 병 원 진료비 지원 ▲WHO 고령친화도 시 조성 ▲어르신 생활 돕는 마을 활 동가 육성

## 김순호가 걸어온 길

▲순천대 경영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구례군 간전·산동·마산면장, 스 포츠산업과장 ▲더불어민주당 전남 도당 행정발전특별위원장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민선7기 구례군수

#### ◇체류형 관광도시 행정력 집중

구례군은 소비·체험·힐링 관광을 모토로 1박· 2박·3박을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나아가 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구례읍·섬진강·화엄사· 지리산온천 권역을 4대 권역으로 정하고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비와 관광의 중심지로 만든 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오산 관광레저 클러스터 조성 ▲화엄사권역 관 광 르네상스사업 ▲지리산온천지구 민간자본 유 치 등이 있다.

도시재생사업으로는 구례읍 도시재생 뉴딜사 업(153억 원)과 삼대삼미 전원도시재생 사업 (537억 원)이 대표적이다. 통합어울림센터, 복합 특화상가, 창업지원센터, 공유부엌이 구례읍 일 원에 들어선다.

LH국민행복주택을 100세대 규모로 건립하고 노후주택 정비를 지원한다. 중심지 3km 구간의 전봇대를 지중화하고 복합광장을 조성해 보행환 경을 개선한다. 구례5일시장은 182억 원을 들여 보행·가로환경을 개선하고 플래그쉽 스토어를 운 영하는 등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만든다.

이와 연계해 민선 8기에는 구례읍사무소를 '구 레관광청'으로 리모델링하고 그 일대는 청년들의 창업과 창작, 주거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청년 허브로 조성한다.

153억 원 규모의 구례 웰니스 복합센터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약 1,800평 부지에 국민체 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 간을 조성해 주민 화합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섬진강 권역에는 오산 케이블카라는 랜드마크 를 필두로 섬진강 대숲길과 자전거길, 지리산 둘 레길을 잇는 450m 규모의 생태 경관 보도교를 109억 원을 투자해 설치할 계획이다.

인근 지역에는 섬진강길을 따라 공중에서 서핑 하는 '스카이 서퍼' 와 섬진강을 도강하는 '스카이 바이크'를 설치해 레저시설을 확충한다. 이와 연 계해 '섬진강 나루장터'를 조성하는 등 관광산업

'4대 권역별 사업' 마무리 총력 케이블카·사계절 스키장 조성 치유농업 연구개발 중심지 육성 재해예방 지구단위 복구사업 속도 사회안전망 강화…유학센터 건립



이 주민소득 창출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엄사 사찰 권역은 생태·치유 관광지로 만들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화엄 블루투어 프로젝 트, 반달가슴곰 생추어리 조성사업이 있다.

화엄사와 화엄상가를 연결하는 친환경 교통수 단을 도입하고 화엄사와 국립공원 종복원센터를 잇는 산사의 음이온길을 만들어 화엄사 권역을 관 광벨트화한다.

마산면 황전리 일원 2만4,000㎡ 부지에 90억 원을 투입해 야외 방사장, 사육장 등을 갖춘 반달 가슴곰 생추어리를 조성한다.

민선 8기에는 구례군 산동면 만복대에서 화엄 사를 거쳐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까지 이어지는 천 년고찰 문화 탐방로를 조성하고 조계종과 연계해 불교신도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만들 계획이다.

지리산온천권역은 지리산정원을 구심점으로 휴양과 힐링관광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리산정원 에는 생명치유 가옥과 숲속의집 단지를, 지리산온 천관광지에는 100억 원 규모의 에코힐링타운을 조성해 관광객들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시설들 을 보강한다.

# ◇청년일자리·미래먹거리 역점

치유산업 육성은 민선8기에 역점시책으로 추진

하는 대표적인 미래먹거리 사업이다

구례군은 전국에서 최초로 도시의 전 경지면적 에서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선포한 친환경농업도 시다. 구례군에는 전국 최초의 친환경유기식품 클 러스터인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자리하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총 19만3,000㎡부지에 949억 원 규모의 투자로 조성됐다. 자연드림파크 1.2단지에는 18개의 식품 가공 공방과 물류센터, 영화관, 숙박시설 등이 자리하고 있다. 약 570개 의 지역일자리로 매년 141억 원의 근로소득이 창 출되고 있으며, 지역 농·특산물도 연 36억 규모로 납품되고 있다.

민선 7기에는 전남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를 완 공하고 150억 원 규모의 토마토 공방 설립을 추진 하는 등 친환경유기농업의 메카로 도약하고 있

구레군은 이와 연계해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 운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약 7만8,000㎡ 부지에 180억 원을 들여 유기농업 체험관과 마케 팅센터, 가공센터 등을 조성하고 있다.

민선8기에는 친환경유기농업도시로서의 위상 을 정립하고 이를 치유산업으로 한 단계 더 발전 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선8기 핵심사업으로 치유·힐링클 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만평 부지에 600억 원을 투자해 치유산업단지를 만들고 청년 일자리 2,000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 해 자연드림파크와 함께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에 도전한다.

이와 더불어 식이 · 운동요법을 활용한 중증환자 치료병원인 아이쿱 치유병원을 유치하고 가족형 요양타운을 조성해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리 산 치유농업 캠퍼스를 조성해 치유산업 인재를 육 성하고 치유농업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모든 농경지를 친환경유기농업에 맞는 토양으 로 개선하기 위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유기질비료를 공급한다. 기후변화에 발맞춰 스마 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등 미래농업의 기반을 닦는 다. 읍·면별로는 고부가가치 특화작물을 육성하

고 우리밀 복합산업화를 지원해 지역특성이 반영 된 소득농업을 창출한다.

#### ◇홍수 피해 재발방지 온 힘

2020년 8월 섬진강 홍수 피해 재발방지사업에 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례군이 확보한 공공부 문 복구예산은 총 3,500억 원으로 이중 2,200억 원이 재해예방사업인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으 로 추진된다.

구례군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은 서시천 등 지 방하천 6개소와 소하천 5개소를 정비하고 침수피 해 지역에 배수펌프장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하천 제방은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높이고 불안 정한 각종 구조물을 개선한다. 오는 2023년 12월 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25% 다. 이와 함께 드론 LRS(Land, River, Sky) 실 증 사업을 추진하여 산불 관제, 병해충 방제, 수계 감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노인·장애인 등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강화한다. 노인들의 생활을 돕는 마 을활동가를 육성해 취약계층 불편 해결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어르신 병원 진료비 쿠폰을 지원한다.

노약자·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WHO 고령친화도시로 인증 받는다는 구상이다.

인구유입과 주거안전망 확충도 주요사업으로 꼽았다. 민선8기에는 청년 전용 거주시설인 청년 하우스를 조성해 취업・창업・귀농을 위해 전입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을 마련한

민선7기 각광 받았던 '농산어촌 유학'을 더욱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인구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유학센터를 조성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치유산업을 육성하고 머물 다가는 관광 르네상스를 실현해 재도약의 길을 마 련하겠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들 께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례=손석봉 기자

## (왼쪽부터)

- ▶김순호 군수가 지구단위종 합복구사업 현장을 찾았다. ▶김순호 군수가 주민과의
- 대화 도중 환하게 웃고 있다. ▶김순호 군수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임대농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